김민기의 노래 〈봉우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들은 사람 모두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간다. 땀흘리며 애써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지만 다다른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삶은 여전히 허망한 것이고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봉우리인 줄 알고 열심히 오르지만 은 언덕에 불과 그곳은 하나의 작 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양귀자의 연작장편 은의 노래 〈한계령〉을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단편 〈한계령〉은 양희 통해 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 인생은 산처럼 무거운것 한줄기 바람으로 흐 르 라

소설 속의
'나'는
소설가이다.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던 어느 날 15년 전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 〈검은 상처의 부루스〉를 잘 불렀던 찐빵집 딸 박은자. 그 아이는 밤무대 가수 '미나박'이 되었다고 한다. 곧 카페 하나를 차리게 되어 그만둔다며 닷새 안에 클럽으로 자신을 꼭 보러오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통화가 끝나자 '나'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녀와는 고작 한 해 동안의 추억을 나눈 사이일 뿐이지만 은자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언젠가 은자와 함께 있었던 유년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소설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가
자기가 쓴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깊은 밤 한창 작업에 불들려 있다가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나는 은자가 나오는 그 소설을 읽었다._____〈한계령〉 중에서

이렇듯 은자는 유년기의 기억을 현재의 삶에 복원하는 매개체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년의 기억이다. 또한 이즈음 시작된 큰오빠에 대한 '나'의 가슴 아픔과 맞물린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큰 기둥처럼 가족들을 받치고 있던 큰오빠. 누구나 어려워하며 절대적인 존재로만 알았던 큰오빠의 존재는 더 이상 예전의 강한 모습이 아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힘들게 키워낸
동생들이 그리 엇나가게 자란 것도 아니련만 그의 상실감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 '나'는 그런 큰오빠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 은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추억을 잃기 싫어서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남루하게 서 있을지도 모를 친구를 통해 현실의 핍박함을 확인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는
유년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은 욕구는 그것이 깨질까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나'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아닌데 약속한 시간 내에 그녀를 만나러 가지 못한다. 몇 차례의 주저 끝에 나선 마지막 일요일 밤. 나는 가슴을 울리는 한 곡의 노래를 듣는다. 예전에 이미 알고 있으나 오늘 처음 듣는 노래처럼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노래. 이 부분에 흐르는 음악이 바로 양희은의 〈한계령〉이다.

저 산은 내게 우지마라 우지마라 하고
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가고파
이산 저산 눈물 구름 몰고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한계령의 음률에 젖어
'나'는
그저 아득해질 뿐이다.

소름이 돋는다. 결국 은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그날 밤, 꿈에 '나'는 지친 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난다. 무거운 짐꾸러미를 저마다 어깨에 메고 있다. 모두 등이 휘어지고 지쳐만 가지만 쉴 곳도 목을 축일 샘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펼쳐진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큰오빠, 형제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걷고 있는 인생의 행로를 보는 것 같아 목이 메인다. 간신히 어렵사리 봉우리에 오르지만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라곤 모두 잊어버리라는 한 줄기 바람일 뿐인 것이다.

카페의 이름을 '좋은 나라'로 지었다는
은자의 전화를 받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카페 이름을 '좋은 나라'로 지은 것에 대해
나는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다만 내가 그 좋은 나라를 찾아갈 수 있을는지,
아니 좋은 나라 속에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될는지
그것이 불확실할 뿐이었다._____〈한계령〉 중에서

작가 양귀자가 〈한계령〉에서 한 울타리에 존재할 수 없는 두 '한계령'과 '좋은 나라'라는 단어를 꺼내놓은 까닭을 눈밝은 독자들은 알 것이다.

강경희 기자